

식생활의 질적 연구방법론

박 동 연

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 가정교육과

Qualitative Methods in Food and Nutrition Research

Dong-Yean Par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서 론

식품영양학 연구방법에는 화학실험이나 동물실험 등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규명하는 자연과학적 방법과 식품영양과 관련된 인간의 지식, 태도, 행동 등을 조사하는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에는 실증주의 철학을 근거로 하는 양적 연구와 현상학, 해석학을 근거로 하는 질적 연구가 있다. 실생활에서 인간이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행위는 통제된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다. 이는 개인이 처한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식생활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과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관찰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질적 연구는 또한 실체(reality)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상황을 경험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식생활에 대한 경험, 지식,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식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면 인간의 식생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영양개선활동이나 영양교육의 효과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식품영양학 분야의 조사연구는 대부분이 양적 연구였다. 앞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많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몇 가지 문헌(Kim 등 1996; You (역) 2001; Kim (역) 2002; Kim 1997; Denzin & Lincoln (2000); Shepherd & Achterberg (1992); Streu-

bert & Carpenter 1999)을 참고로 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질적 연구방법의 정의

그 동안 사회과학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정의와 양적 연구와의 구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이는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질적 연구가 단순히 일단의 기법들이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한 지적,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성장된 것이기 때문이다(Kim 역 2002).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는 현장 연구(field study), 자연주의적 연구(naturalistic research), 문화기술적 연구(ethnography research), 사례연구(case study),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등의 여러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일군의 연구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라고 여겨지는 일군의 연구방법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질적 연구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You 역 2001).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

- 1) 질적 연구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동, 느낌, 동기, 신념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즉 인간이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 타인 및 상황에 부여한 해석과 의미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 2) 질적 연구는 구체적인 관찰에서부터 일반적인 이론을 구축하므로 발견지향적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귀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질적 연구에서는 실체를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상황을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실체는 늘 변화하고 역동적이라고 가정한다.

4) 질적 연구방법에서 자료 수집은 자연적(naturalistic) 환경에서 수집된다. 과학적 탐구에서 사용되는 탈맥락적 접근이 아니라 상황을 중요시한다.

5) 질적 연구방법은 특정 범주나 변수보다는 연구대상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연구한다. 완전한 총체적 관점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연구하며, 자료를 광범위 하게 수집, 참여관찰, 면접, 생애사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6)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자료 수집 도구로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적 상황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될 다양한 실체를 두루 포괄할 수 있다. 또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을 지닌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 자신을 민감한 관찰 도구로 활용한다.

7)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또한 그 활동을 관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는 내부인(insider)의 관점을 강조한다.

8) 질적 연구 과정에 가치관 개입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

9) 질적 연구는 꾸밈없는 언어로 표현되고 보고되는 주관적인 자료에 관심을 갖는다.

4) 프로그램의 결과보다 과정을 평가하려고 할 때

5) 양적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

표본 추출

질적 연구방법에서 확률표본추출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흔히 사용되는 것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다. 이 방법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개성, 경험, 행동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방법이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의 수는 한 명에서 수백 명까지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 적은 수로 구성된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와 장시간 강도 높은 접촉을 하여 한 사람에게서 얻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표본의 수를 반드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구 초기의 결과를 보아 같은 또는 다른 관점을 가진 연구대상자가 필요하다면 표본 수를 점차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만일 표본 추출과정이 이론이나 설명을 도출해 내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징을 포함할 때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라 한다. 집단면접의 표본을 추출할 때는 집단의 역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때는 구성원들이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령, 학력, 경제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동질 집단을 한 그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주제와 질적 연구

여러 경우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는 특히 질적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제시된 주제가 모든 것을 포함하지도 않고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지만 질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공통분모를 가졌다(You 역 2001).

1)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구적 접근을 하려 하는 경우

질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알려진 연구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와 같이 초기 탐색적 단계에 특히 적합하다.

2)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할 경우
위기 상황, 딜레마,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할 때

3) 어떤 사람으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 것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하려고 할 경우

자료의 수집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에는 참여 관찰, 면담, 내용분석, 등이 있다.

1.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관찰은 현장관찰과 자료기록을 위하여 연구대상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활동을 말한다. 양적인 접근에서는 통제된 상황 하에서의 구조화된 관찰이 중심이 되는 반면, 질적인 접근에서는 자연주의적 관찰 기법, 특히 참여관찰에 초점을 둔다. 연구자는 특정한 연구현장에서 장기간 참여관찰과 접촉을 통하여 참여자의 언어를 배우고, 행동패턴을 관찰하고 생활양식, 의식, 감정, 신념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참여관찰은 특히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없을 때, 현장의 활동, 상황, 사람, 그리고 의미를 기술하려고 할 때, 참여자가 직접 언급하기 싫어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참여자가 면담 상황에서 연구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참여자 자신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할 때 효과적이다.

연구자는 관찰을 하기 전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제기해 보고 그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구자는 관찰을 하는 동안 완전한 참여자와 완전한 관찰자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하는 동안 어떤 신분, 어떤 역할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관찰 사실을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알릴 것인지 일부에게만 알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연구 문제에 적절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관찰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관찰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볼 것인지 얼마 동안 관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심층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대면하여 질문과 관찰을 통해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피면접자의 생각, 태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얻는 과정이다(Shepherd & Achterberg 1992). 면담은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방법이다. 면접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 나누는 비형식적인 대화로 이루어진다. 비형식적인 대화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는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비록 면접이 비형식적인 대화로 이루어진다 해도 면접자는 면접 지침서를 미리 만들고 사전 연구를 통해 적용해 보아야 한다. 면접 지침서는 대개의 경우 반구조화된 형태를 취한다. 반구조화된 지침서는 면접 결과를 비교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면접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면접자는 연구 대상으로부터 어떤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특정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면접자는 면접의 방향을 제시하고 흐름을 조절한다. 면접자는 심층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질문(probes)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이 심층적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접지침서에는 겉표지와 면접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겉표지에는 면접이 실시 된 날짜, 시간, 장소, 및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소견서에는 연구 대상에 관한 면접자의 관찰 내용과 면접 현장에 대한 느낌 등을 기록한다. 면접 중에 행한 관찰은 면접 내용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목소리의 높낮이, 감정적인 표현(한숨, 흐느낌, 웃음), 몸짓, 면접 장소의 환경과 분위기 등은 기록된 면접 내용에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3. 핵심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핵심집단면접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집단으로 면접하는 방법이다. 집단의 크기는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아야하는데 보통 7~12명 정도가 적당하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훈련된 리더에 의해 토론 주제에 대해 구성원 상호간에 토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집단구성원간의 자극으로 개개인으로부터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핵심집단면접의 구성원은 유사한 배경을 가졌으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 구성원이 서로 잘 아는 경우 습관적 상호작용이 일어나 참신하고 새로운 의견을 얻지 못할 수 있다.

4. 내용분석

내용분석은 탐구대상에 있는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징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메시지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진의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문화적 산물, 교과서, 영화, 잡지, 자서전, 일기, 편지 등의 내용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간 주요 여성지에 실린 여성의 체중 조절에 관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체중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관찰자와 면접자의 조건

관찰자와 면접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 하나는 성별이다. 면접자의 성은 피면접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의 주제나 면접 장소에 따라 동성이 좋을 때도 이성이 좋을 때도 있다. 또 다른 사항은 안전이다. 면접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성별과 관계없이 면접자는 연구 주제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면접 지침서를 외우는 것 이상으로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 적절한 때 적절한 질문으로 피면접자에게서 응답을 이끌어내야 한다. 면접자는 또한 충분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공식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면접 상황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현장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전자기기의 사용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자주 사용한다. 이들 기기는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기록하는 방법이 갖는 부정확한 기억, 짧은 기억력, 편향된 인식, 비체계적인 기록 등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특히 비디오 카메라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모두 기록하게 해준다. 이들 기기는 또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녹음기를 사용하면 면접자는 연구 대상자의 말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녹음기는 노트에 적을 때는 할 수 없는 피면접자의 웃음소리, 흐느끼는 소리, 한숨, 빈정거림 등 중요한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다. 피면접자는 대부분 면접을 시작할 때 녹음기의 사용에 신경을 쓰나 곧 녹음기의 존재를 잊어 면접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비디오 카메라는 연구 대상자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비추는 곳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료의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자료를 의미 있는 부분 부분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범주로 묶고, 마지막에는 각 범주간의 관계를 재형성하는 과정이다(Shepherd & Achterberg 1992). 양적 연구에서와 같이 자료를 연역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질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자료 분석은 귀납적, 생성적으로 행해진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가 수집되면 바로 분석을 시작하라고 권장한다. 이는 몇 명 안 되는 연구대상자의 면접 결과도 방대한 양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번갈아 이루어진다.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부가적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연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순환적 과정을 중간 분석(interim analysis)라 한다. 분석의 기본 절차는 녹취록 작성(transcription), 자료 분절화와 부호화(coding), 주제(theme) 또는 의미의 생성 과정을 거친다.

1. 녹취록 작성(Transcription)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은 기록으로 옮기는 과정인 녹취록 작성은 현장에서 수집하거나 기록한 자료들을 추후 분석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대화는 녹음기에 저장된다. 녹음 내용을 옮길 때는 가능한 한 피면접자가 한 말 그대로를 옮겨야 한다. 녹음 테이프의 말이 이해하기 힘들어도 절대로 고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면접자의 목소리 톤이나 무드 등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녹취록 읽는 것으로 녹

음 테이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면접 자료를 기록으로 옮기는 동안 면접 자료에 친숙해지고 연구자에게는 면접에 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2. 범주화(Categorizing) 또는 부호화(coding)

범주화란 녹취록을 여러 번 읽은 후 자료의 특정 부분이 어떤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의미를 가진 단위인 개개의 정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과정이다. 자료 전체를 연구자의 철학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공통의 원칙이나 일관된 지표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조사 현상이 이미 어떤 이론에 의해 기술된 것이라면 그 이론이 자료를 수집하기 전 범주화를 위한 개념틀로서 이용된다. 이때 이용된 이론의 개념들이 범주의 라벨로 쓰이게 된다(예, Choei 등 2000). 반면, 자료 수집 시 이론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조사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없을 때는 귀납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자료로부터 자연스럽게 범주들을 만들어 낸다. 때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론과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여 두 방법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한 세트의 범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단 범주화를 마치면 내적 동질성(internal homogeneity)과 외적이질성(external heterogeneity)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범주화를 검증해야 한다. 내적 동질성이란 한 범주에 속한 자료는 모두 그 범주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는가의 문제이다. 반면 외적이질성이란 범주들이 서로 상호 배타적인가의 문제이다. 어떤 학자들은 외적이질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 범주의 상호배타성은 현상의 전체를 보려는 질적 연구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Shepherd & Achterberg 1992).

3. 자료의 해석(Interpretation)

해석 과정은 분석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각 범주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도출된 다양한 범주와 읽기, 분석, 추론을 통해 자료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를 만든다. 자료의 해석 방법에는 목적에 따라 특정 쌍의 비교로부터 설명적 의미를 이끌어 내는 비교 해석, 사회현상의 전개를 추적하고 설명을 시도하는 전개해석,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기술하는 묘사해석, 사회현상을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는 예측해석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며 대부분의 해석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포함한다(Kim 역 2002).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연구의 재생산 가능성(reproducibility)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뢰도는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참여자들이 결과의 의미에 동의하는 정도를 말한다.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는 결과의 정확성(accuracy) 정도를 의미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많은 방법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늘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신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타당도를 소홀히 다룰 수도 있다.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김영천 1997).

1. 충분한 시간과 집중적인 관찰

관찰 대상을 충분히 긴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시간 부족으로 생기는 해석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피관찰자와의 친밀감 형성과 질 실한 질적 자료 획득에도 필수적이다.

2. 삼각측량법

한 가지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연구 방법들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여러 방법의 사용은 한가지 방법만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감소시켜 준다.

3. 심층적 기술

설명할 대상에 대해 전반적이고 밀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근접하게 잘 설명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연구대상자의 삶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심층적 기술은 맥락에 대해 기술해야 하고, 행위에 숨어 있는 의도와 의미에 대해 진술하고, 행위 전개 과정의 전과 후를 설명해야 하며, 독자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를 텍스트로 발전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4. 참고자료의 사용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 테이프, 메모, 연감, 신문, 현장기록지 등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동료의 조언

연구자와 연구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같은 동료를 선정

하여 연구자의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해 조언과 평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6. 연구참여자에 의한 평가 작업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 중 일부가 연구자의 분석과 결과 해석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가정은 연구대상자가 동의하는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결과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주목적이 연구대상자의 삶을 근접하게 설명하는가에 있기에 이 방법은 진실하고 과학적인 활동이다.

7. 반향적 글쓰기

질적 연구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문제, 질문, 가설, 관점들이 변화되거나 심화된다. 연구자는 현장과 접촉하면서 연구 문제를 현장과 더 근접하게 타당성 있는 문제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연구자가 비결정성, 유연성, 개방성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발전되었는가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방법적 반성은 이론과 실제, 이론과 경험,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에 놓였던 거리를 좁혀 타당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결 론

이상의 발표로 질적 연구의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피상적으로 보기에 질적 연구는 복잡한 표본 추출 과정이나 통계분석 과정이 없어 간단히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자료 수집 방법의 다양성, 표준화된 설문지의 부재, 방대한 자료의 분석, 자료로부터 새로운 의미의 도출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이나 개인이 독특한 경험의 의미를 심도 있게 밝히는 흥미 있는 연구 방법이라 생각된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 연구에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합하여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 두 방법의 사용이 어렵다면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해 두 방법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한 풍부하고 완전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윤옥 · 김성혜 · 신경숙 · 신경일 · 정명화 · 허승희 · 황희숙
(1996) : 교육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과 설계. 문음사

Padgett DK 저, 유태균 역(2001) :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사

Mason J 저, 김두섭 역(2002) :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사

김영천(1997) : 학교 교육현장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5) : 135-170

Denzin NK, Lincoln YS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Sage Publication

Shepherd SK, Achterberg CL (199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Data collection, analysis, interpretation, and verification in*

Mason ER. (ed) *Research: successful approach*. Chiago,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pp.82-99

Streubert HJ, Carpenter DR (1999):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Advancing the Humanistic imperative*. 2nd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최선정 · 박혜련 · 박동연 · 안홍석(2000) : 당뇨환자의 식사처방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I : Focus Group Interview를 이용하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1) : 23-35